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음 12월 23일) 제22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한복의 일상화’ 화이팅 외치는 전주시의원들

지난 25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국제화시대 전북의 위상 강화

전북도, 자매우호 협약
2021년까지 13곳으로 확대
국제정책 자문단 구성
국제업무 워크숍 첫 개최
해외 현지대응능력 강화

전북도는 새로운 전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가치 선점과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2019 도정 국제화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7기 전라북도 대도약 기조에 부응하여 도정 국제화 선도, 교류사업 확대 등 장기적 차원의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고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강화로 국제화시대 전북 위상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주요내용은 4대 분야별로 11개 과제를 선정해 올해에 중점 추진한다.

먼저, 국제교류 확대 및 강화 분야로써 자매우호 및 MOU 협약을 현재 4개 국가 9개지역에서 2021년까지 13개국 20개지역으로 확대하여 대륙별로

다변화할 예정이다. 선진국은 선진 행정 산업 벤치마킹 등 교류, 인접국은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문화예술 인적교류, 신흥국은 개발 협력사업과 기업 해외진출 모색, 후진국은 지원사업과 봉사외교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에는 4개 지역을 목표로 기존 교류활동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을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도 국제정책 고도화를 위한 국제협력 민간, 시군 거버넌스 구축이다.

국제교류정책 자문 의결수령을 위한 ‘국제정책 자문단’ 구성운영, 해외 33개국 80명으로 위촉된 국제교류자문관 운영 활성화, 도와 시군 국제업무 공무원 워크숍 첫 개최를 시작으로 이후 정례화해 추진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무원외여행을 위해 공무원외여행 절차를 개선한다. 공무원외여행 심사위원회 월 1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심사를 확대강화하고 청

원 글로벌 벤치마킹계획에 따른 과제별 연수팀 선정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노조 측을 포함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 심사에 연수 목적에 충실하도록 기관 방문과 현지 활동사항 등 전체일정 심사에 중점을 두어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정 국제화 선도 인재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흥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에서의 사업수요 급증에 대비 교류협력과 기업진출 및 현지마케팅 지원을 위한 베트남 해외사무소 운영 또는 KOTRA 공무원 파견을 검토 추진하여 해외 현지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강우 대외협력국장은 “민선7기 전북 대도약 기조에 부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전북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해외에서의 전북 이미지 제고 및 도정 국제화 견인을 위해 분야별 과제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무주군 체육회장배 스키·스노보드 대회 관계로 29일자 신문 쉽니다.

社告

제5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9년 1월 28일(월) ~ 1월 29일(화)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 체육회장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주최: 전주매일신문, 무주군
- ▶ 주관: 전북스키협회
- ▶ 후원: 전북도, 무주스키협회, 무주덕유산리조트
- ▶ 참가자격: 전국 아마추어 남녀 스키, 스노보더인
- ▶ 참가접수 및 기간: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현장접수 가능
- ▶ 시상: 1·2·3위 남녀별(스키, 스노보드별)
- ▶ 부상 및 트로피, 기념품 제공
-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새 증원 약대 지방 설립? 군산, 약학대 설립 적지”

군산시의회, “군산대 약학대학 유치” 촉구

최근 교육부가 국가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신설 약학대학을 지방대학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새로 증원되는 약대는 지방에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군산은 인구 28만 규모의 도시 중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등 의학계열 학과가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이에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군산이아말로 약학대학이 설립돼야 할 적지(適地)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군산의 인구도 2017년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다. 지

역을 지탱하던 산업 중심축이 흔들리면서 인구유출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군산과 같은 소규모 도시에서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성장의 구심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군산대학교에 약학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군산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지역의 우수 인재가 타지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해법이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현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이루기 위해서 군산대학교에 약학대학이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 즐거움을 보내주세요

고창군의회